



제주,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 갖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오영훈 지사 관련 업무협약 체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감독 권한 지방 정부에 위임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오영훈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근로감독관 인력 대다수는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집중되면서 체불·산재에 대한 예방 감독 역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지방 정부가 근로 감독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근거 법률을 제정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



30일 오영훈 지사(사진 왼쪽)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담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제주도 제공

를 확립하고, 교육·업무매뉴얼·전문 인력 등을 지원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은 근로감독권한 위임이라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제주가 지방정부 근로감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도, 중·저금리 전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30일 백록홀에서 (주)피노텍, 제주은행, 제주신정보증재단과 함께 이런 내용의 '제주 금융취약계층 안심 대출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주)피노텍은 제주 지역 금융취약계층 중·저금리 차환 절차 전자등기 시스템을 설계·운영하고, 상품기획 저작권을 제공한다.

제주은행은 중·저금리 대환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참여하고, 제주신정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중·저금리 대환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이상민기자

“제주에 산학연관 MRO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한화오션·도 30일 공동 세미나
한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밝혀

조선 산업 불모지인 제주지역에 선박 유지·보수·정비 시장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화오션 공동 주최로 30일 제주시 썬호텔에서 열린 '제주 MRO 미래로 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에서 한화오션은 제주에서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MRO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오영훈 지사와 여성철 한화오션 사장, 신유찬 해군 군수참모부 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는 선박을 정기적으로 정비·수리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서비



스 산업이다. 세계 조선·해양산업이 친환경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유지·보수를 넘어 기술 혁신과 전문 인력이 결합된 미래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 측은 MRO 융합기술 플랫폼 구축과 공동 기술 연구과제 개발, 청년 전문 인력 양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철 한화오션 사장은 “태평양, 중국, 동남아를 잇는 제주의 입지와 한화오션의 AI·디지털 기반 차세대 MRO 기술이 조화를 이룬다면 제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MRO 산업의 매카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이어가며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2월 2-8일)

“고객 위한 최적 금융서비스 최우선”

▶NH농협은행 남문지점=2일 개점 50주년을 맞는 NH농협은행 남문지점(지점장 김소영·사진)은 제주시청 인근 벤처마루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늘 지역은행, 생활은행으로서의 역할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김소영 지점장은 “고객을 위한 최적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최우선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 756-0731.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한라신협=오는 6일 창립 56주년을 맞는 한라신협(이사장 강정신·사진)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도 제주를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건전 경영을 통해 조합원 2만5000여 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강정신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장학사업, 기부활동 등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 757-7171.



“정품 취급… 철저한 사후 관리”

▶제주도전자담배&전동킥보드=오는 8일 창립 19주년을 맞는 제주도전자담배&전동킥보드(대표 박인철·사진)는 도내 전자담배 1호 매장으로, 제주시 신제주점과 서귀포시 서귀지점을 운영하며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전자담배 제품을 비롯해 도내에서 시가담배를 취급·공급하고 있는 한편 다양한 전동 킥보드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박인철 대표는 “전문 정품 제품만을 취급해 판매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 서비스도 철저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751-6789.



게임 개발사 '111퍼센트', 제주 사무소 개소

제주특별자치도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111퍼센트가 지난달 30일 제주 오피스 설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111퍼센트는 3월 제주시 한림읍 일원에 제주 오피스를 개설하고, 약 3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2015년 창립한 111퍼센트는 '랜덤다이아', '운빨존많잼' 등 흥행작을 보유한 게임 개발사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수도권의 기업들이 제주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로또복권 <제1209회>	
당첨번호	2, 17, 20, 35, 37, 39
2등 보너스숫자	24
1등	6개 숫자 일치
2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3등	5개 숫자 일치
4등	4개 숫자 일치
5등	3개 숫자 일치

제주도정소식



제주가치돌봄『돌봄이 필요할 땐 ☎1577-9110』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누리집
※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주민
 - 공모인원 : 32명
 - 신청방법 : 방문신청(제주도청 예산담당관) 전자우편신청(hjh6430@korea.kr)
 - 신청기간 : 2026. 1월 27일 ~ 2월 9일 18:00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710-2325)
- ※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 도정소식 > 고시·공고(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2026년 수눔돌봄공동체」 모집 안내

- 신청대상 : 영유아 및 초·중등 돌봄 자녀를 둔 3가구 이상 구성된 자조 모임
- 지원내용 : 공공체불 최대 2,000천원 * 아동 1인당 월 2만5천원, 장애아동 1인당 월 3만5천원
- 신청방법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접수 (https://jffsc.kr/index.php)
- 신청기간 : 2026년 1월 19일 ~ 2026년 2월 9일 (상시접수)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710-2872, 제주가족친화센터 ☎742-4979

※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 > 수눔돌봄 > 공모사업 신청 참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순수돌봄수당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 24~47개월 아동(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도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돌봄수당 : 영아 1인 월30만원(영아 2인 45만원, 영아 3인 60만원)
- 신청방법 : 매월 1일~15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2026년 2월 이달의 제주 독립운동가

- 성명 : 고운하(高雲河)
- 생몰년월일 : 1923.02.19. ~ 1983.07.02.
- 훈격(연도) : 건국포장(2022)
- 운동계열 : 일본방면
- 공적개요 : 일본 나가사키현 소재 이시하야농학교 재학 중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맏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굴묘목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천혜향 2년생 3년생

▲궁 천 3년생

·황금향 ·레드향 ·한라봉
그 외 다 수 품 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나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